

“통합은 일자리... 남구, 에너지·문화콘텐츠 전략 거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남구, 남구의 회와 함께 28일 빛고을문화관에서 ‘광주 전남 통합 남구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권역별 시민 의견 수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김병내 남구청장, 정진욱 국회의원, 시·구의원, 안전·교통·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제도적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먼저 인구 감소 및 경제력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가 된 광주 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 담은 ▲시도민 불이익 배제 원칙 ▲공직자 관할구역 근무 보장 등을 약속했다. 또 “남구는 에너지산업의 모든 것이 모이게 될 것이다”며 “산업, 일자리, 청년이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겠다. 통합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명칭과 청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우려를 바로잡고 지난 27일 시도시사와 국회의원이 합의한 최종 결정을 밝혔다. 통합 특별시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이며, 청사는 현재 3개 청사를 균형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김병내 남구청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시민과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는 경제, 행·재정, 교통, 복지, 교육 등 통합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이 이



시민 500여명 참석... 교통·복지 등 실질적 생활편익 주문 남구 끝으로 ‘5개 기관 합동 권역별 시민공청회’ 마무리 기대·우려 폭넓게 논의... 수렴된 의견 후속 추진과정 반영 ‘부강한 광주전남’ 시민의지 결집... 직능·전남권 소통 지속

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자치와 광주의 정체성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교통·복지·생활서비스 등 시민들

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 ▲송원대학교 철도특성화대 지원 영향 ▲일자리 창출 효과 ▲공공임대 공급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분석하고, 직능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 수렴해 통합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권역별 시민공청회와 광주시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온라인 소통플랫폼’ 등을 통해 행정통합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시민참여 기반의 통합 논의를 한 단계 더 심숙시켜겠다는 방침이다. /전광춘 기자

북구, ‘작은 돈의 큰 변화’ 공직자 잔돈 기부 프로젝트 시행 공직자 자발적 참여 기반 나눔 문화 확산 목적 지난 12일부터 참여자 모집... 현재 총 180여명 참여 신청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공직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잔돈 기부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작은 돈의 큰 변화’를 슬로건으로 공직자 급여에서 천 원 미만의 잔돈을 모아 기부하는 것이 골자이고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이웃돕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부는 공직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바탕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2일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80여 명이 급여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을 완료했고 다음 달부터 매월 기부금이 적립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직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1년간 모인 기부금은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나눔 실천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참여를 연중 독려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직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자발적인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서구, 구민안전보험 형평성·실효성 높여

5개 자치구 보장 기준 통일 이끌어내... 생활밀착형 안전보장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들의 안전 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자치구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별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달라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을 받는 구조였다.

또한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일부 보장 항목이 중복돼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서구는 지난해 5개 자치구간 실무 협의를 거쳐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한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편안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는 2월부터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 수술비 ▲연열 질환 진단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6개 핵심 항목을 동일 기준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광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자연재해·사회재난 등 14개 항목)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을 과감히 제외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재원을 생활 밀착형 보장 항목 신설과 확대에 제투자

했다.

올해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화상 수술비 회당 최대 1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 등이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2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구민이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진단비도 10만원 지원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안전은 구민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지”라며 “이번 개편은 5개 자치구가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 곁에 든든한 안전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전남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한다

맛춤형 컨설팅·위생용품 지원 등 환경개선·경영혁신 지원

수·순천·나주 등 13개 시군, 155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매뉴 개선과 매장 운영, 위생 관리 등 실질적 컨설팅을 제공해 소규모 음식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를 위해

8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과 환경정비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전남도 대표 음식점인 남도음식명가를 중심으로 종사자용 친절 유니폼(앞치마·위생모) 1만 7천 세트를 지원한다.

위생 이미지 개선과 함께 종사자의 서

비스 인식 제고와 친절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국제행사 등 대내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음식점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전남을 찾아오는 누구나 신뢰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동구, 설 명절 맞아 ‘찾아가는 명절 위문’

사회복지시설·보훈단체 등 73개소 방문해 위문금 전달

는 등 현장 소통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동구는 구 차원의 시설 위문과 더불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체 위문계획을 수립해 돌봄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명절 지원 활동을 병행했다.

각 동에서는 독거 어르신, 취약가구 등 돌봄 이웃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함께

위문품 전달, 생활 불편 사항 점검 등을 실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밀착형 돌봄을 강화했다.

동구는 형식적인 명절 방문을 넘어,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과 현장 부담을 사전에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미리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위문을

추진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명절이 다가오기 전 미리 찾아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줘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구 관계자는 “명절은 모두에게 따뜻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외로움과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 현장으로 먼저 다가가는 사람 중심의 복지 행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 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8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2개소와 보훈단체 11개소, 총 73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찾아가는 명절 위문’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구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위문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now naju

2026 나주 방문의 해